

8월 23일(월) / 렘 1-3

▶ 내용요약 : 예레미야 1장에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나 처음에 예레미야는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시고 살구나무 가지와 꿀은 가마 환상을 통해 유다의 멸망을 보여주셨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셨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에 3장에서 예레미야는 북왕국의 죄를 따르는 유다를 향하여 진실한 회개를 촉구했다.

▶ 질문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두 환상은? (1장)
▶ 생각하기 :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미 예레미야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원하시는 뜻대로 귀하게 사용하신다. 기억하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8월 26일(목) / 렘 29-31

▶ 내용요약 : 예레미야 29장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예레미야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했다. 30-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도 하셨다. 마치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이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31장)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을 맺으리라”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관계 서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신다.

8월 29일(일) / 애 1-5

▶ 내용요약 : 예레미야아가는 문학적인 구조를 가진 시의 형태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슬픔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인의 간절함을 통해 유다의 멸망을 애도하는 책이기도 하다. 1장에서 시인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인한 슬픔을 노래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이로 인해 인적이 끊긴 버려진 성이 되었다. 한편 2장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크게 슬퍼했다.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고 원수들의 조롱은

8월 24일(화) / 렘 4-6

▶ 내용요약 : 예레미야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행할 것임을 선포하셨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 애썼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참상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6장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무지와 무감각으로 인해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감당했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6장)
“내가 또 너희 위에 ()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비롯한 그 누구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자.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자.

8월 27일(금) / 렘 32-34

▶ 내용요약 : 예레미야 32장에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거듭 약속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셨다. 33장에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다시 선포하셨다.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네게 보이리라”

▶ 생각하기 :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말할 때, 예레미야는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 또한 멸망이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는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위로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아가갈 길을 제시하고, 교회와 세상을 위로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자.

끊이지 않았다. 3장에서는 이러한 시인의 절망적인 감정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의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를 통해 그의 절망은 소망이 되었고, 진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다. 4장에서 시인은 다시금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했다. 예루살렘은 백성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에 5장에서 시인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8월 25일(수) / 렘 16-18

▶ 내용요약 :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또한 초상집에도,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도 약속하셨다. 17장에는 예레미야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관적 통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과 국가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락을 세웠다.

▶ 질문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것은? (16장)
▶ 생각하기 : 선지자는 입으로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닌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요한일서 3:18을 읽으라)

8월 28일(토) / 렘 35-38

▶ 내용요약 : 예레미야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며 포도주를 거부했다. 반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린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36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관 앞에서 낭독하게 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 버렸다. 37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왕과 그의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리고 38장에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고 말았다.

▶ 질문 :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한 사람은? (36장)
▶ 생각하기 :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한다. 마치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말이다.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자.

▶ 질문 : 아래 빈 칸들을 채우시오. (3장)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들을 조사하고 ()께로 돌아가자”

▶ 생각하기 : 슬픔이라는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슬퍼해야 할 때 함께 슬퍼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교회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슬픔과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